

2018년 7월 18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파월 의장 증언 후 상승 전환 성공 페이스북 +1.33%, 아마존 +1.18%, 알파벳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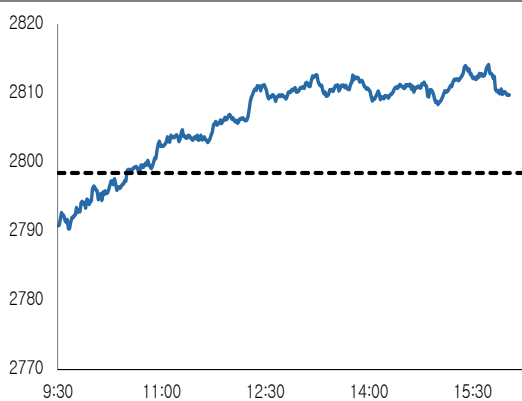
파월의장 발언과 기술주 반등 영향

미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 이후 상승 전환에 성공. 장 초반 미 증시는 넷플릭스 급락에 따른 기술주 부진으로 하락 출발. 그러나 기술주가 하락폭을 확대하기 보다는 2 분기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전환하자 미 증시 또한 반등에 성공. 특히 파월 연준의장이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고, 점진적인 금리인상 의지를 표명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다우 +0.22%, 나스닥 +0.63%, S&P500 +0.40%, 러셀 2000 +0.52%)

미 증시는 ①파월 의장 의회 청문회 ②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상승. 통화정책 관련 상원 청문회에서 파월의장은 신규 고용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미국 경제 또한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 인플레이에 대해서는 가솔린 가격으로 상승 했으나, 목표인 2% 내외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발표. 무역분쟁과 관련해서는“개방적인 국가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생산성도 높았지만, 보호 무역주의로 나아가는 국가는 부진했다” 라며 최근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해 비판. 특히 “최근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얼어붙었다” 라고 주장. 파월 의장 발언 이후 금융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러화는 상승 했으며, 국제금리는 강보합권을 유지.

한편, 넷플릭스가 부진한 가입자수 증가 여파로 급락하고 ‘FANG’ 기업들 또한 하락 출발. 시장 참여자들은 지난 9 년의 미 증시 강세장을 이끌었던 기술주 상승세가 꺾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명. 그러나 웰스파고 등 일부 투자회사들은 넷플릭스 가입자 수 증가세가 부진한 이유는 계절적인 현상일 뿐 가입자수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을 제기. 일부는 내년에 일본과 인도 시장을 통해 가입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넷플릭스는 낙폭을 축소했고, ‘FANG’ 기업들은 실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 팩트셋은 IT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24.6%(yoy)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는 등 실적 개선 가능성은 여전. 다만, 넷플릭스 문제가 일회성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향후 ‘FANG’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더욱 주목할 듯.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97.92	-0.18	홍콩항셱	28,181.68	-1.25
KOSDAQ	819.72	-0.73	영국	7,626.33	+0.34
DOW	25,119.89	+0.22	독일	12,661.54	+0.80
NASDAQ	7,855.12	+0.63	프랑스	5,422.54	+0.24
S&P 500	2,809.57	+0.40	스페인	9,719.40	+0.03
상하이종합	2,798.13	-0.57	그리스	765.35	-0.05
일본	22,697.36	+0.44	이탈리아	21,977.82	+0.7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 기술주 반등 성공

넷플릭스(-5.24%)는 2분기 가입자수 증가가 예상을 하회했다는 발표 여파로 하락 출발 했으나, 계절적으로 2분기는 가입자수가 적다는 점이 부각되며 하락폭이 축소 되었다. 특히 인도와 일본에서 의미 있는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하락폭 축소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페이스북(+1.33%), 아마존(+1.18%), 알파벳(+1.38%) 등 'FANG' 주식들도 하락 출발 했으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램리서치(+3.17%), AMAT(+2.14%), KLA-텐코(+1.66%) 등 반도체 장비업종은 생산지연이 일시적이겠지만, 투자심리는 위축 될 것이라며 일부 투자회사가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며 하락 출발 했다. 그러나 기술발달이 지속됨에 따라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반등에 성공 했다. J&J(+3.54%)는 양호한 실적 발표와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상승 했다. 골드만삭스(-0.18%)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금리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유나이티드헬스(-2.60%)는 예상을 하회한 실적 발표로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05%	대형 가치주 ETF	+0.13%
에너지섹터 ETF	-0.46%	중형 가치주 ETF	+0.21%
소매업체 ETF	+1.20%	소형 가치주 ETF	-0.04%
금융섹터 ETF	+0.11%	배당주 ETF	+0.11%
기술섹터 ETF	+0.72%	변동성 ETF	-1.09%
소셜 미디어업체 ETF	+0.68%	대형 성장주 ETF	+0.58%
인터넷업체 ETF	+0.81%	중형 성장주 ETF	+0.82%
리스업체 ETF	-0.62%	소형 성장주 ETF	+0.90%
주택건설업체 ETF	+1.45%	신흥국 고배당 ETF	+0.62%
바이오섹터 ETF	+0.75%	신흥국 저변동성 ETF	+0.41%
헬스케어 ETF	+0.55%	하이일드 ETF	+0.08%
곡물 ETF	0.00%	물가연동채 ETF	-0.13%
반도체 ETF	+1.32%	Long/short ETF	-0.5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55.30	-0.38%	-2.94%	+0.30%
소재	368.93	+1.32%	-0.97%	-1.21%
산업재	619.56	+0.38%	+0.01%	-1.55%
경기소비재	899.06	+0.10%	+0.99%	+0.86%
필수소비재	543.17	+0.78%	+0.44%	+4.00%
헬스케어	1,010.06	+0.54%	+0.37%	+3.06%
금융	456.39	+0.15%	+1.15%	+0.08%
IT	1,281.56	+0.81%	+1.72%	+1.25%
통신	149.10	-0.36%	-1.17%	+3.36%
유틸리티	265.94	-0.06%	+0.80%	+5.49%
부동산	201.24	-0.63%	-1.61%	+3.3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0.51% MSCI 신흥 지수도 0.73%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1,101 계약)에 힘입어 1.20pt 상승한 298.5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6.3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출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파월 의장의 점진적인 금리인상 의지 표명 발언에 힘입어 상승 했다. 더불어 기술주 또한 반등에 성공하며 투자심리가 개선되었다. 이는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월 의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해 우회적인 비판을 가했다는 점은 주목된다. 이번 주 있을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재무장관 간의 협상이 기대되고 있고, 25 일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용커 EU 집행위원장의 만남이 있어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려했던 미국의 기술주가 반등에 성공 했다는 점도 한국 증시에 우호적이다. 지난 9 년간의 미국의 강세장을 주도했던 기술주가 넷플릭스 하락을 촉매로 조정을 보인다면 한국 증시에는 부정적일 수 있었으나, 반등에 성공 했다는 점은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오늘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소득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 한다. 관련 내용에 따라 경기 부양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지 여부도 주목된다. 특히 지난해 2018 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 했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및 혁신성장 같은 키워드가 나올지 여부에 따라 일부 종목과 업종의 변화가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산업생산 개선

미국 6 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6% 증가 했다. 지난달 발표치(mom -0.5%)나 예상치(mom +0.5%)를 상회했다. 특히 제조업생산이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 다만, 공장 가동률은 78.0%에 그치며 예상치(78.4%)를 하회했다.

중국 6 월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0% 상승 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치(yoy +4.7%)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상승 전환 성공

국제유가는 미국, OPEC 국가들의 산유량 증가 우려 및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장중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달러 강세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리비아 국영 석유 회사가 원유 수출에 대한 불이행을 선언하자 리비아발 원유 공급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반등에 성공 했다. 한편, 미국 산업생산이 양호한 결과를 내놓자 수요 증가 기대감도 심리에 우호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달러지수는 양호한 산업생산 결과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파월 연준의장이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점도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도 목표인 2%를 유지 할 것이라고 주장한 점도 영향을 줬다. 한편, 파운드화는 2 차 브렉시트 투표 가능성이 제기되며 달러 대비 1% 가까이 약세를 보였다. 신흥국 환율은 달러 강세 여파로 약세를 보였다. 다만, 약세폭은 무역분쟁 관련 협상이 진행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제한되었다.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 했다. 또한 미-중 재무장관 회담, 미-EU 간의 회담 등이 이어지며 무역분쟁 우려감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파월 연준의장이 상원 의회 청문회에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과 점진적인 금리인상 의지 표명을 했으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는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다만, 여타 비철금속은 무역분쟁 우려감이 완화된 데 힘입어 혼조 마감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65%, 철근도 0.415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8.08	+0.03	-8.14	Dollar Index	94.957	+0.47	+0.85
브렌트유	72.16	+0.45	-8.50	EUR/USD	1.1664	-0.40	-0.68
금	1,227.30	-1.00	-2.24	USD/JPY	112.85	+0.50	+1.67
은	15,617	-1.23	-2.92	GBP/USD	1,3114	-0.91	-1.22
알루미늄	2,032.00	-1.12	-2.78	USD/CHF	0.9995	+0.27	+0.77
전기동	6,152.00	-0.65	-2.85	AUD/USD	0.7388	-0.42	-0.95
아연	2,512.00	+1.54	-4.49	USD/CAD	1.3194	+0.44	+0.62
옥수수	359.75	+1.27	-0.28	USD/BRL	3.8438	-0.43	+0.77
밀	497.75	+1.89	+1.17	USD/CNH	6.7231	+0.30	+1.09
대두	855.25	+1.12	-1.86	USD/KRW	1124.10	-0.45	+0.73
커피	109.25	-0.95	-4.83	USD/KRW NDF 1M	1126.33	-0.10	+1.16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862	+0.37	+1.28	스페인	1.247	-2.90	-2.80
한국	2.550	+0.70	0.00	포르투갈	1.730	-3.90	-1.80
일본	0.043	+0.30	-0.20	그리스	3.828	-1.00	+0.60
독일	0.346	-1.70	+2.60	이탈리아	2.465	-10.90	-20.20